

나. 생태문화도시 조작적 정의

생태도시란 개념은 산업혁명이후 인주집중으로 인한 도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 문제가 제기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개념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이후로 대두된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목표로 제기되었다.

생태도시, 환경도시, 환경공생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에코시티, 녹색도시 등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현하고 있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생물 다양성 생태도시(녹지 및 쾌적한 수계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체계), 자연 순환체계를 확립하는 자연순환성 생태도시(수질, 대기, 폐기물처리가 환경친화적이며 무공해에너지를 사용하고, 자원을 최대한 절약하고 재사용하는 체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형 생태도시(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도시, 건축 및 교통계획과 인구 계획이 확립된 체계)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태도시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고 다양한 도시 활동과 공간구조가 생태계의 원리인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자연생태계의 보존, 에너지 및 수자원이 순환할 수 있는 도시시스템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생태적 매커니즘이 도시사회, 경제적 구조까지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념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도시를 말한다(김귀곤. 1997).

문화도시는 다양성과 창조성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특징을 가진 공간이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를 즐기고 일상을 이어가